



제목	비잔틴 제국의 신앙: 콘스탄티노플에서 꽃피운 그리스도교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도서출판 예경
발행일	2006. 1. 25.
저자	메리 커닝엄 이종인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200
ISBN 또는 ISSN	978-8970842950

내용 요약

이 책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 새로운 수도를 건립한 330년부터 1453년까지 비잔틴 제국에 터를 잡았던 정교회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이다. 기독교는 크게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 정교회(Orthodox Church), 개신교(Protestantism)의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저자에 따르면 비잔틴 제국에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여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4세기 말 무렵에는 정교회가 비잔틴 제국의 지배적인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 기독교 신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태도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식 교회의 모든 면에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비잔틴 제국이 보수적이고 억압적이며 부패하고 창조정신이 없는 사회였다고 주장하는 에드워드 기번을 비롯한 역사학자들의 기존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저자는 비잔틴 제국에 창조적인 발상과 종교 사상이 번성하고 발전했으며, 당대인들이 우주만물의 창조와 인간 역사에 신이 내재하고 개입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비잔틴 제국 사람들의 정체성이 한편으로는 제국 내의 종교적 소수파를 억압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해 나가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대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일한 사건이나 항목이 중복되는 한편, 묶인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조명된다. 이 책은 기존에 평가 절하되었던 비잔틴 제국과 정교회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중심의 기독교 이해가 가진 편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기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